

發 刊 辭

흔히들 21世紀를 環境의 世紀라고 부르고 있는 바, 그 만큼 環境이 重要하고 環境과 關聯된 課題가 많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重要的 歷史的인 時點에 있어 우리 韓國環境法學會가 하여야 할 所任이 實로 重且大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學會와 會員 여러분은 우리의 環境保全手段을 再檢討하여 法制的 側面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地球環境을 온전히 保存하기 위하여 어떠한 支援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知慧를 모으고 政策에 반영하여야 할 所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韓國環境法學會는 環境意識이 荒蕪地이었던 1977년에 創立되었고, 1979년에 『環境法研究』 創刊號를 發刊한 以來 이제 世紀를 넘어 「環境法研究」 第22卷을 發刊하게 되었으니 나름대로 所任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發刊하는 『環境法研究』 第22卷은 21世紀 環境의 世紀를 맞이하여 環境基本權에 關聯된 問題를 廣範圍하게 다루면서 特輯으로서 『遺傳子 再組合 食品』에 관한 論文들을 실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本誌의 內容이 더욱 충실해지고 各界에서 本誌에 對한 關心이 커져가고 있으니 여간 반갑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玉稿를 보내 주신 執筆者 여러분께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그동안 本會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李尙圭 名譽會長님을 비롯하여 歷代會長님, 顧問님들의 業績에 대하여 敬意를 올리며 역대 常任理事님들과 理事님들, 監事님들의 獻身과 勞苦에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本誌의 發刊에 직접 수고를 하여 주신 朴秀赫 總務理事님과 洪準亨 研究理事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本誌가 더욱 알찬 內容으로 成長하기를 빌면서 韓國環境法學會와 會員들의 無窮한 發展과 榮光이 있으시기 祝願합니다. 끝으로 본지 제22권 출간을 후원해 주신 (주)풀무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年 12月

會長 李 英 基